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4.30원 오른 1,127.80원에 장을 마감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4.30원 오른 1,127.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예상보다 매파적이었던 FOMC 영향에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6.50원 오른 1,130.00원에 개장하였으나 장 초반 삼성중공업의 주 소식 들려오며 상승폭을 줄이며 1,120원 후반대로 하락했다. 그러나 위안화 약세 흐름을 따라 환율은 1,130원대로 다시 올라섰고, 리스크오프 분위기 또한 확산돼 상승 압력을 더하며 1,130.90원까지 상승하였다. 장 후반 환율은 위안화 흐름을 따라 재차 아래쪽으로 흘러 1,126.80원까지 하락하였고, 1,127.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1,007.64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30.00	1130.90	1126.80	1127.80	1128.9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97.66	1017.52	996.81	1013.84

금일 전망

약달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1,120원 초중반 중심 박스권 예상

금일 환율은 약달러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1,120원 초중반 중심 박스권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8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27.80원) 대비 4.75원 내린 1,121.25원에 최종호가 됐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미 증시 하락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또한 미국 정부의 섣다른 가능성도 겹치면서 달러화 약세 재료가 됐다. 수출업체들의 네고 물량 출회 등 공급 우위 수급이 환율에 하락 압력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달러원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 증시 하락에 따른 우리 증시 영향력이 악화되며 증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아 하락 압력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환율은 연말 장세에 접어들며 변동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0.00 ~ 1127.4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17.79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75원 ↓

■ 美 다우지수 : 22859.6, -464.06p(-1.9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9.2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257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